



가수 싸이가 14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기념공연에서 자신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열창하며 춤을 추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 F1 싸이 열풍 지구촌 달궜다

드라이버·외신기자들도 말춤

“여러분이 뛰면 저도 뛰겠습니다. 마지막 공연이란 생각으로 다 같이 뛰겠습니다! 자 F1! 축제! 뛰어~”

14일 오후 6시5분, 영암 서킷 상설 패독 앞 야외 공연장은 싸이의 이 한 마디에 경충 뛰어오르는 5만여(F1 조 직위 추산) F1 관람객들로 물결을 이뤘다.

F1의 감동이 케이팝으로 이어진 이날 싸이의 F1 특별축하공연에 구름관중이 모이고, 대회 우승자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과 외신기자들도 말춤을 쳤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한류 공연이 짜릿한 스피드를 선사한 F1과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싸이는 “언뜻 보면 열심히 부른다 고 보이는데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탑싱크’하는 관객이 있다. ‘나 하나 안 뛰어도 될까’ 하시는데 그런 분들 내가 바로 찾을 겁니다”며 관객을 압도했다.

이날 F1 조직위가 마련한 무대 앞 의지도 싸이 측의 요구로 공연 전 모두 치워졌고, 관객들은 세계인을 사로잡은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기 시작했다.

과거 F1 대회가 끝나면 한꺼번에 경주장을 빠져나갔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대부분의 관중이 싸이의 말춤을 보기 위해 야외 공연장으로 몰려 들었다. 또 새벽부터 줄을 서있는 열

심 팬들 때문에 경찰이 투입돼 플라시 라인을 치며 질서 유지에 나서서 등 중일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이번 F1 코리아 그랑프리 최고 히트작 중 하나였던 특별공연이 성사되는 과정에 싸이가 출연료를 스스로 깎아주는 등 성공적인 국가행사를 위해 “통 큰 결정”을 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5만명이 운집한 공연장 일대에 오전부터 960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F1 조직위원회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관중 이동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날 모인 5만명의 관람객은 싸이의 화려한 공연에 박수 갈채를 보냈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춤을 따라 쳤다.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도 싸이는 말춤을 선보였고, 이 장면은 전세계 6억명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페텔과 마크 웨버도 결승전 직전 싸이의 지도 아래 패독 앞에서 말춤을 취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 각국 언론인 400여명의 열띤 취재현장인 미디어센터에서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나 자주 연출됐다. 유럽 등지의 기자들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F1 한국 대회를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렸다”고 입을 모았다.

## F1 3년 연속 구름관중... 대중화 기반 다졌다

### ‘우리 손으로 치른 첫 대회’ 연착륙 페텔 2년 연속 우승, 웨버 2위 차지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우승한 제바스티안 페텔.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을 뜨겁게 달군 ‘2012 F1 (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14일 결승전을 끝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관련기사 2·3·14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3년 연속 누적 관람객 16만 명 돌파라는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운영 노하우에 목포대교 개통 등 획 개선했던 교통시설, 충분한 숙박시설에 글로벌 스타로 급부상한 가수 싸이의 축하공연 등이 어우러져 국내는 물론 TV를 통해 코리아 그랑프리를 시청한 지구촌 팬들에게 전담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이 중심이

진입도로 등이 완전 개통되면서 교통소통도 원활했다. 숙박 시설도 특급호텔과 한옥호텔을 포함해 수요 대비 144%인 4만2000실이 확보돼 이렇다할 숙박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글로벌 스타 싸이를 홍보대사로 영입하고 단독 공연을 성사시키면서 모객 효과를 극대화 한 것도 성공의 비결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F1보다 공연을 목적으로 찾은 관람객들도 많이 주객이 전도됐다. 지적과 티켓 요금을 내려 관객 동원에는 성공했지만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지속개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람객 김정선(36·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씨는 “3년째 코리아 그랑프리 현장에서 지켜본 마니아로서 전반적으로 성공 개척이라고 할 만하다”면서 “이제는 한국 팀과 드라이버가 나와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는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페

텔은 5.615km의 서킷 55바퀴(총길이 308.630km)를 1시간36분28초651에 달려 싸이가 흔든 체커기를 가장 먼저 받았다.

같은 팀의 마크 웨버(호주)가 8.2초 뒤진 2위로 들어와 레드불은 결승 1.2위를 휩쓸었다. 레드불은 컨스트럭터(팀) 순위에서 367점으로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나로호 3차 발사일, 선박·항공 통제

26~31일... 최종 발사일 22일째 결정 발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의 3차 발사(26~31일 오후 3시30분~7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발사 예정일은 오는 22일께 결정·발표될 전망이다.

1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따르면 나로호 3차 발사의 예정일은 오는 22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사 시점에 근접한 시점까지 최신 기상예보를 참고해 결정하기 위해서다.

발사 시작은 오후의 발사 가능 시간대 중에서 당일의 기상과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재차 검토해 최종 확정한다.

나로호 1·2차 발사와 마찬가지로 3차 발사 역시 예정일이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발사일과 발사 시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우주 계획의 특성 탓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나로호 3차 발사가 예정된 26일 발사장인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주변 공·해역과 추진체 낙하 경로에 포함되는 일부 항공로를 폐쇄하고 선박 운항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발사까지 인근 항공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7시10분까지 폐쇄된다. 또 가지 남쪽 40해리(길이 75km·너비 24km) 이내 해역에는 오후 12시30분부터 7시10분까지 선박이 진입할 수 없다. 우회 항공기는 총 33대로 부산~제주 항공로가 폐쇄됨에 따라 약 102km를 우회해 부산~광주~제주 경로로 갈 예정이다. 여수~거문도 여객선 2척과 화물선 40여척, 어선 30여척도 통제 대상이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 무안 세발낙지 풍년

어획량 늘어 가격 30%대 하락  
제철맞아 전국 미식가들 발길

무안의 대표적 수산물인 세발낙지가 가을철 성어를 맞아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추석절 무렵 한 접(20마리)당 20만~30만원하던 갯벌 세발낙지 가격이 최근 5만~7만원대로 폭 떨어졌다.

지난달 말까지 23도 이상의 고수온을 유지했던 무안과 신안, 함평 등 서해안 지역의 해수온이 본격적인 성어를 맞아 평년 수준(20도)으로 회복하면서 갯벌낙지 어획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또 무안군이 탄도만에 추진한 자원 회복사업에 힘입어 세발낙지 어획량이 대폭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무안을 낚시골목, 낚지 직판장 등에는 세발낙지 등을 먹기 위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안 갯벌낙지는 색이 짙빛이고, 발이 길며, 부드럽다. 콜레스

테롤 저하와 빈혈 예방 등에 탁월하고 간장 해독작용 등에 좋은 우월 영양식품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어획량이 늘어 거래 가격 또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 세발낙지는 지난해 760여 어에서 560여을 생산해 14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 효자 수산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12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12. 10. 21(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성호

www.stv21.co.kr

충남 서북부 거점도시 서산  
최초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 60%  
주요 아파트 전세가 비율 70%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률 90%

**“타이밍이 좋다”**  
**여기는**  
**서산테크노밸리다**

산업단지 배후 공동주택용지 평균 160만원/3.3㎡대 분양  
\* 위치 및 면적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 후 확인하세요

충남 서북부 핵심 계획 신도시 **서산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분양

01 충남 서북부 핵심 계획 신도시	02 세종시를 잇는 충청지역의 거점도시, 서산시	03 풍부한 주택 수요 및 뛰어난 투자기회
● 충남 서북부 지역의 6,4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계획 신도시	● 최근 분양이 빠른 평균 분양률 90% 육박	● 새로운 주거환경을 꿈꾸는 서산, 당진의 주거 수요 케어
● 최근 서산시 아파트 분양 성공을 잇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	●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신규수요 확보 가능 지역	●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입주 완료
● 녹지 및 생태하천 등 경관이 살아있는 친환경 도시 디자인	●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전국 사통팔달 교통망	● 대산산업단지 등 인접 산업단지 15,000여 명의 배후 주거 가능
● 학교, 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생활인프라 구축 완료	● 국도 29, 32호선 충청권 교통망 및 대산항, 평택항의 해상 교통망	

서산테크노밸리 Hanuwa KDB생명 이 공동주택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문의전화 (031)8014-7054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